

‘채용형’ 인턴 줄인 혁신도시 기관들...“청년 채용 외면”

알리오 분석...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2곳 채용형 청년인턴 선발 ‘전무’ 한전, 재정난에 채용형 인턴 선발 급감... 농어촌공사 등 5곳 5년간 ‘0’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사 중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제외한 12개사가 지난해 ‘채용형 청년인턴’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만 매년 ‘채용형 청년인턴’을 채용해왔고, 한전KPS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22년 20여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이전기관들이 최근 3년간 채용형 청년 인턴 선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년 채용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한전을 제외한 12개 공공기관들은 ‘채용형’ 대신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에 나섰다. 이는 청년 고용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 채용’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3-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인턴 기간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용형 청년인턴 또는 정규직 전환인턴 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공공기관 13곳이 채용한 채용형 청년인턴 수는 274명이었다. 한전이 274명의 채용형 청년인턴을 채용한 게 전부로 다른 12곳은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16곳 중 정부 부처의 소속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사업정보센터, 농식품공무원연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과 연계 없이 청년 ‘스펙’ 쌓기로 이용되는 단기 일자리. 채용형은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제도라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한전(704명) 외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8명), 한국인터넷진흥원(34명), 한전KPS(26명) 등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용형 청년인턴을 다수 뽑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각 기관들의 채용은 급감했다.

한전은 재무 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채용형 청년인턴을 447명으로 대폭 줄였고 한전KPS(2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3명) 외에는 채용형 대신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채용형’으로 단 한명의 인턴도 선발하지 않았다.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청년 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육성, 인구 유입 효과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채용 축소가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불과 3년전까지만해도 1500여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왔지만, 지난해 청년인턴 채용 수는 970명으로 39.9% 줄었다.

또 한전의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 수 역시 1772명(2019년)→1547명(2020년)→1047명(2021년)→482명(2022년)→266명(2023년)→286명(2024년) 등 최근 5년간 8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들, 설 명절 소외이웃에 온정 나눔

농어촌공사·한전 등 물품 전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 등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실천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나주계산요양원을 방문해 화장지, 한라봉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나주지역 계산원, 효정원, 이화영화원, 나주시장애인주안보호센터 등 지역 소재 사회복지 시설 4곳을 찾았다.

한전도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이 이남 나주 ‘행복의 집’과 ‘노안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한전은 또 나주시의 추천을 받아 4개 사회복지시설(요안나의 집, 도솔실버타운, 나주실버케어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에도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

한전은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도시락전달, 생필품 기부, 음식배급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이상기후 악화·AI 투자 확대...올해 전력수요량 높인다

한전, 지난해보다 1.9% 증가 전망 데이터센터 1곳당 4인가구 6000배

올해 전력수요량이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데이터 센터, AI 분야 투자 확대 및 이상기후 악화로 인한 냉방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전력공사(한전) 경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전력산업 경영환경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력 수요량은 549.4TWh로 전년(539.2TWh) 대비 10.2TWh(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전력 수요패턴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 글로벌 통화 긴축 완화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기계류의 경우 AI 반도체 투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 확대되고, 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수요량 감소 요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 전력다소비기업들의 자가발전설비 투자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기업들의 자가발전설비 투자 증가 현상은 지난 2020년 SK하이닉스의 이전시, 정주시 LNG 자가발전소 건설 도입을 기점으로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 전력다소비 기업들이 다수 자가발

전소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전력다소비기업들이 전력 공급 안정성,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가발전설비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상업용의 경우 소비집체 장치화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데이터센터 급증세가 상업 부문 전력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1개소의 연간 평균 전력사용량은 25GWh로 4인 가구 6000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수준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한전 경영연구원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량이 지난 2021년 7.9TWh에서 오는 2030년 19.4TWh로 2.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전력거래소, 청렴·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주-시 프레시’ 킥오프 회의

주니어 직원·부서장급 등 참석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6일 전력거래소 오송지사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주-시 프레시 조직문화 개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니어컬처리더와 시니어컬처리더를 합친 ‘주-시’를 내걸고, 입사 5년차 이하 직원인 주니어 직원과 팀장 및 부서장급의 시니어 직원이 합동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the CHARMing KPX’를 슬로건으로 협력·건강·책임·혁신·동기 등 5대 분야에 걸친 조직문화 개선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조직문화 중점 개선 사항으로는 ‘청렴’과 ‘안전’을 선정하는 등 직급별, 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송석돈 한국전력거래소 경영지원 처장은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통이다

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특히 ‘주-시 컬처리더’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청렴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는 기존 ‘주니어 컬처리더’ 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참여 범위를 확장해 지난해 ‘시니어 컬처리더’를 출범했다.

시니어 컬처리더는 출범 이후 전 직급이 참여하는 직원 주도형 조직문화 개선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활동으로는 직급간 크로스 멘토링, 번아웃 극복 코칭 및 협업 문화 정착, 직장 에티켓 캠페인 실시 등의 다양한 소통 활동들이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전남도, 혁신도시산단 일대 배터리산업 생태계 활성화 나서

나주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

전남도와 나주시가 혁신도시 일대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약홍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나주시와 이차전지 산업육성 및 전기차 제조 배터리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는 혁신산단 일대에 환경부 주도로 진행중인 전기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기차 전 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이 추진중인 만큼 향후 제2차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까지 갖추게 되면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육성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재제조, 재활용, 재사용 등을 일컫는다.

전남도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교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따라 신규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제2차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전기차 제조 배터리 검사기술개발과 안전 기준, 인증체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은 2050년에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배터리 재제조 시장을 선점하고 케이(K)-배터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